

特別企劃

生産性向上과 에너지節約

安 光 菴

〈商工部 企業指導官〉

産業界의 生産性向上

最近 産業界의 生産性向上 問題에 對한 論議가 活潑해지고 있다. 先進國이나 競爭關係에 있는 나라들이 生産性向上에 注力하는 동안 우리는 지난 20 여년간 外形의 成長에 치우친 나머지 이에 대한 努力이 未洽, 競爭力面에서 많은 問題點을 나타내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事情은 다음 몇 가지 資料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表-1〉에서 보듯이 GNP 成長에 對한 生産性向上의 寄與率은 우리나라가 39%, 日本이 55%, 美國은 48%, 西獨은 56%로 表出돼 있다. 더우기 이들 先進國의 數值가 오래前의 것임을 勘案할 때 現時點에서의 그 誤差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측돼 우리나라가 生産性向上을 爲한 努力을 倍加해야 할 當위성이 절로 理解된다.

가까운 이웃 台灣과 比較해 보면 이러한 事情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表-2〉 投資와 生産性 伸張推移 (單位: %)

76~79平均	台 灣	韓 國
投資 增加率	4.6	26.9
生産性 增加率	12.3	10.5

資料: 經濟企劃院

〈表-2〉에서도 보듯이 台灣은 投資增加보다 生産性增加의 tempo가 훨씬 높았던데 비해 우리나라는 生産量擴大를 爲한 投資增加에 더 注力, 경쟁력面에서 台灣에 뒤지지 않을 수 없는 根因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게 發見할 수 있다.

生産性과 에너지

生産性を 높이는 길은 經營·設備·技術은 勿論 勞使協力關係 등 여러 갈래로 區分할 수 있다. 그 중의 한가지가 바로 에너지節約, 다시말해 에너지의 代替나 그 效率을 提高시키는 일이다.

專門機關의 分析에 依하면 우리나라 産業의 에너지 成本이 너무 높아 高油價의 影響이 그대로 産業 전반에 波及되는 구조적 취약점을

〈表-1〉

經濟成長과 生産性向上의 寄與率推移

(單位: %)

	韓 國 〈 63 ~ 76 〉	日 本 〈 57 ~ 71 〉	美 國 〈 48 ~ 69 〉	西 獨 〈 50 ~ 62 〉
GNP 成長率	9.3 < 100 >	8.8 < 100 >	4.0 < 100 >	6.3 < 100 >
勞動의 寄與率	3.5 < 37 >	1.9 < 21 >	1.3 < 32 >	1.4 < 22 >
資本의 寄與率	2.2 < 24 >	2.1 < 24 >	0.8 < 20 >	1.4 < 22 >
生産性向上의 寄與率	3.6 < 39 >	4.9 < 55 >	1.9 < 48 >	3.5 < 56 >

註: < >內는 構成比

資料: KDI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1979)"

에너지코스트(産業部門別 石油投入比)比較
 <表-3>

	韓 國		日 本	
	1970	1978	1970	1978
全 産 業	0.020	0.041	0.021	0.020
農 林 · 漁 業	0.013	0.019	0.021	0.031
鑛 業	0.028	0.034	0.116	0.149
製 造 業	0.033	0.032	0.019	0.019
(經 工 業)	(0.027)	(0.024)	(0.013)	(0.013)
食 料 品	0.015	0.015	0.009	0.009
織 維	0.021	0.017	0.007	0.007
「펄프」및 紙類	0.026	0.027	0.017	0.018
窯 業	0.117	0.145	0.057	0.052
其 他 輕 工 業	0.022	0.013	0.007	0.007
(重化學工業)	(0.041)	(0.040)	(0.023)	(0.022)
化 學	0.045	0.064	0.056	0.044
鐵 鋼	0.028	0.026	0.022	0.012
非 鐵 金 屬	0.040	0.020	0.012	0.009
金 屬 製 品	0.036	0.023	0.018	0.016
一 般 機 械	0.032	0.015	0.012	0.008
電 氣 · 電 子	0.021	0.011	0.011	0.008
輸 送 用 機 械	0.033	0.010	0.005	0.004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3>에서처럼 우리나라 産業의 에너지코스트는 日本의 것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어 에너지價變動에 거의 無方備상태임을 여실히 反映하고 있다.

洋灰業界의 燃料代替

洋灰業界가 生産性向上의 일환적으로 燃料代替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時宜適切한 움직임 이라고 評價된다. 特히 시멘트 工業은 代表的인 에너지 多消費 産業이다. 시멘트 工業은 全 B·C油 消費量의 12%를 使用할 뿐만 아니라 産業用에 局限시켜 볼 때는 무려 24%를 占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멘트 生産原價에 對한 燃料費의 比重도 매우 높아 33%에 이르고 있는바 油類價格의 繼續的인 上昇으로 國際競爭力까지 漸次 弱화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에 對應, 洋灰業界는 油類보다 價格이 低廉하고 確保戰略面에서도 安定성이 큰(現在の 確認埋藏量으로 原油는 30년, 石炭은 200년의 可採量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有煙炭을 代替燃料化 하려는 것이다.

現在 洋灰業界는 總 23,463 톤의 生産能力을 갖추고 있으며 基數도 35基에 이르고 있다. 業界에서는 이들 基數를 有煙炭(約 8割)과 油類(約 2割)의 混燒키른으로 改替하는 事業을 推進中에 있는 것이며 79년부터 82년까지 3년여에 걸쳐 內·外資 總 1,100 억원을 投入, 모두 完了시킬 計劃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될 경우 燃料費는 約 12%의 節減이 期待되며 83년以後에는 年間 750 억원에 達하는 막대한 金額이 節減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勿論 이를 爲해서는 輸入有煙炭을 爲한 港灣施設과 埠頭貯炭場을 確保하여야 하며 鐵道輸送能力도 強化해야 하는 등 社會間接施設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맺 음 말

政府는 最近 「生産性向上 對策」을 樹立, 業界의 生産性向上 活動을 強化해 나가도록 誘導하고 있거니와 이러한 業界의 活動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業界 스스로 推進해야 할 課題인 것이다. 生産性面에서 이기지 못하는 限競争에서도 살아 남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經濟現實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洋灰業界가 에너지 코스트를 節減하기 爲해 自律적으로 基數 改替事業을 推進하고 있는 것은 餘他業界에 많은 教訓과 示唆을 주는 垂範的 活動으로 보아 無妨할 것 같다.

지난 6월 8일 生産性的의 時代를 強調하기 위한 全國生産性向上 促進大會에서 「企業은 生의 보람과 일의 보람을 찾는 마당이다」라고 力說한 企業代表들의 主張처럼 經濟社會에서의 企業은 人間集團의 生活터전이다.

따라서 企業의 盛衰는 人間生活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며 生産性的의 程度는 構成員의 努力에 의해 달렸다고 볼 때 活氣 찬 生活를 위해서라도 生産性은 우선적으로 向上되어야겠다.